



주간통일정세 2008-24(2008.06.09~06.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2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대계도간석지·룡천농장 시찰(6/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건설장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은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며 공사를 앞당겨 끝낼 것을 주문하고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경지 면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새 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또 신암협동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영농 상황을 살핀 뒤 “알곡(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본 방도는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특히 종자혁명 방침 관철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가 동행

- **김정일, 평북 북중기계기업소 시찰(6/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룡천군에 있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선박공업에 필요한 각종 기관과 압축기 등을 생산하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을 둘러본 뒤 “해양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과 해상운수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현대적인 고깃배와 짐배(화물선) 무이(건조)에 필요한 성능 높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북중의 노동계급은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몇 해 사이에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여 생산을 급격히 늘렸다”고 근로자들을 치하하고 기계생산 근로자들과 기념촬영
 - 이날 김 위원장의 기업소 방문에는 김평해 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가 동행
 - * 김 위원장은 2005년 1월 그해 첫 시찰활동으로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은 데 이어 12월에 재방문했고, 2007년 6월에도 시찰한 바 있음.

- **김정일, 군부대 산하 식료공장 시찰(6/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식료공장을 시찰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공장 책임자의 안내로 김일성 주석의 ‘현지교시판’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고 공장 관계자들이 군용 식품생산에 헌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새로 건설된 직장(職場. 생산라인)을 비롯한 공장의 생산공정과 제품을 살펴본 후 “만족”을 표시, 그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자들의 역할 강화를 촉구
- 이날 식료공장 시찰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김정일, 잇단 군부대 시찰(6/11, 조선중앙통신; 6/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756 군부대 산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부대의 ‘부업농사’와 가축 사육 등을 높이 평가하고 “부업경리를 적극 발전시켜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2일 보도
- 이번 시찰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김정일, 군인가족 공연관람·군부대 시찰(6/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기 1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에 참가한 여러 군인가족의 공연을 관람한 데 이어 북한군 제958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인민군 김격식 총참모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중린·김기남 비서 등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한 뒤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이 예술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군시대에 창조된 새 문화의 자랑찬 면모를 다시금 뚜렷이 과시했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또 북한군 제958부대를 방문, 군부대장의 안내로 연혁소개실을 돌아본 후 작전지휘실에 들러 경계근무 수행상황과 훈련실태를 살폈다고 통신은 보도, 군부대 시찰에는 군대장들인 현철해·리명수가 동행

● 김정일, 인민군 군부대 시찰(6/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176부대 산하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나. 정치 관련

● 당·정 간부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6/15, 조선중앙통신)

- 당·정 간부와 평양시 근로자들이 1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고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는다면 타개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는 ‘북이 비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10·3합의 이행이 최후국면에 들어서고 6자회담 재개문제가 상정되고 있지만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북과 남은 필요하다면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민족대화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

다. 경제 관련

● 석탄에 눈들리는 北…고유가속 경제성 재조명(6/12, 연합)

- 북한이 6월 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에너지 실무협에서 핵불능화 진전에 따른 경제·에너지 지원의 하나로 일본에 무연탄가스화 설비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 무연탄가스화는 석탄 화학공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정으로 석탄에 고온과 고압을 가해 기체로 만드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석탄에서도 비료와 화학원료는 물론이고 추가 설비를 붙일 경우 석탄액화유까지 만들어낼 수 있음.
- 이번에 북한이 요청한 무연탄가스화 설비는 일본에 요청한 분담액(4천만달러) 규모로 미뤄 비료원료 생산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석탄을 기체로 만들어 정제과정을 거치면 요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음.

● 생필품 증산운동 촉구(6/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 글에서 “당에 있어서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며 “현 시기 소비품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품종 수를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이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 “설비들의 기술개선(개선)과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소비품 증산 방안으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이용해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각각 제시

● 경제발전 유무상통 원칙 강조(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경제의 자립에 대해 “문을 닫아매고 모든 것을 100% 자체의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외경제관계 발전”에서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을 강조
- 노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방향을 견지하기 위한 중요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면서 “나라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수준에서도 분야별로 다른 것만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있는 것은 주고 없는 것은 받는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 신문은 다만,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경제의 운명을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라면서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라고 설명

● **北천리마제강, 신형 전기로 자체 건설(6/10,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강철생산지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 자체 기술로 신형 전기로를 건설해 오는 9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안남도 천리마군에 있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지난 2월부터 여러 기의 낡은 구형 전기로 중 1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전기로 건설을 시작해 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전기로가 성공적으로 가동될 경우 다른 전기로도 신형으로 건설할 예정

라. 군사 관련

● **北판문점대표부, 모든 억제력 강화 불가피(6/9, 북측 판문점 대표부)**

- 북한의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9일 “미국과 남조선(남한) 호전세력들이 오늘처럼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책동을 계속 추구한다면 조선인민군은 모든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중단, 미국의 대한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 한미간 합동군사연습 등을 들어 이같이 언급

마. 사회·문화 관련

●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최 예정(6/14, 조선중앙통신)**

- 제6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번 전람회에는 10여개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30여개 단체가 참가하며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전자공학, 유전자공학, 환경학, 기초과학, 의학 등 분야의 최신과학기술도서들이 전시

● **AI예방 철새 이동경로 조사(6/13, 조선중앙통신)**

-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철새의 이동 경로와 사람·짐승 접촉 경로 등에 대한 역학적 조사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정권 60돌 대규모 도서전 개최(6/13,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 수립 60돌(9.9)을 맞아 총 2만 종, 4만 부가 넘는 책을 전시하는 대규모 ‘국가도서전람회’를 개최한다고 조선신보가 13일 보도
 - 9월 초 개막되는 이번 도서전에는 조선노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 문학예술출판사 등 북한의 2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해 오는 8월 말까지 발행되는 책 가운데 대표적인 도서를 선정, 전시한다며 행사장에는 각종 잡지와 화첩,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과서도 선보인다고 신문은 소개
 - * 북한은 2002년 고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15), 2005년 노동당 창건 60돌(10.10) 등을 맞아서도 대규모 ‘국가도서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여자축구팀 우승컵 안고 ‘금의환향’(6/12, 조선중앙방송)

 -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베트남에서 열렸던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우승컵을 안고 12일 평양으로 금의환향, 이날 평양순안공항에는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을 비롯한 체육관계자와 평양시 체육인들이 대거 출동해 꽃다발을 흔들며 아시아 정상을 차지한 대표팀 선수들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으며, 선수들에게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열렬히 축하

- 여중생 3인방, 중국어대회 도전(6/12, 조선신보)

 - 북한의 중학교(중·고교 과정) 학생 3명이 중국 충칭(重慶)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 중학생 중국어 경연’에 참가한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들 여학생은 모두 16세로 최근 3차례의 북한 내 예선을 통과한 우수한 학생들임.
 - * 한편 북한 대학생들도 2006년과 2007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 중국어경연에 나가 1, 2등과 1, 3등을 잇달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7월 제7차 경연에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2명이 참가해 대회 3연패를 노림.

- 美 대학 학위 딴 北 유학생은 68명(6/11, 자유아시아방송)

 - 2007년 1월 말 현재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북한 국적의 학생은 34명이며 이와 별도로 이미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북한 유학생은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11일 보도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은 2004년 6명, 2005년 12명, 2006년 4명, 2007년 10명이었고 2008년 1월에는 2명이 미국행에 성공
 - “북한 학생들은 직접 미국에 유학하기는 힘들고 대부분 유럽 등에서 유학하다가 단기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한다”고 미 국무부 직원이



설명하면서 “북한 유학생들의 토플 성적이 남한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귀띔했다고 소개

- **北, 영통사 복원 南지원 뺀채 “김정일 덕”(6/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개성에 있는 천년 고찰인 영통사가 복원된 사실을 전하면서 남한 불교계의 지원 사실은 빼놓은 채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덕으로 돌림.
- **남북, 내일 개성서 월드컵예선경기 실무협의(6/9, 통일부)**
 -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예선 남북전(2차전) 진행을 위한 실무접촉이 10일 개성에서 열린다고 통일부가 9일 발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황준국, 대북 에너지지원 완료시점 대략 합의(6/12, 연합)**
 -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2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 “타깃 데이트(목표 시점)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
 - 황 단장은 브리핑에서 11일 열린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결과와 관련, “어제 회담이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실무그룹 차원에서는 대북 지원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했다”고 언급
- **北외무성, “반테러 의무이행”성명(6/10, 북한 외무성 성명)**
 - 북한 외무성은 10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러 투쟁에서 존엄 있는 유엔성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北외무성, 평양 북미협상 성과적이라고 평가(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6월 10~11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협의와 관련해 “협상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핵시설 무력화(불능화)를 결속(마무리)하는데 나서는 기술실무적 방도와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보상 완결문제가 토의됐다”고 언급



- **조선신보, 美대통령에 매케인보다 오바마가 낫다(6/9, 조선신보)**
 - 북한과 미국 관계를 감안하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공화당 후보가 될 존 매케인 상원의원보다 낫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신문은 “조선반도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부시 정권의 잘못을 엄하게 비판하고 조선의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공언해 온 오바마가 ‘부시의 아류’이자 네오콘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매케인보다 낫기는 낫다”고 보도
 - 신문은 그러나 “설사 매케인이 이겼다 해도 조미관계는 과거에 되 돌려세울 수는 없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뜻을 내비침.

다. 북·중 관계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감독총국 대표단 방북(6/14, 조선중앙통신)**
- **시진핑, 北과 식량원조문제 협의(6/12, 연합)**
 - 6월 17~19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방북기간에 북한과 식량원조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복수 외교소식통들은 12일 “현재 북중 양국의 최대 현안은 바로 중국의 대북식량원조 문제”라며 “시 부주석은 2007년 10월 새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사의 자격으로 상견례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인 식량원조 규모 및 시기를 북한과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
 - * 북중 양국은 일종의 원조협정인 경제과학기술협정의 틀 안에서 매년 식량원조 규모 및 시점을 논의해왔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기초해 2007년까지 매년 10만t에서 15만t에 달하는 원조식량을 북한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짐.
- **북·중, 김정일 첫 방중 25주년 맞아 친선 강조(6/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 25주년을 기념해 양국이 대사관에서 행사를 열어 친선 협력을 강조하고 우호 관계를 다짐.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6월 10일 양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 위원장의 첫 방중을 기록한 영화를 시청하는 영화감상회와 연회가 개최되었다고 보도
 - 이날 행사에는 중국측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비롯해 외교부, 철도부,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인민대외우호협회, 인민일보, 신화통신 관계자들이 참석
 - 류홍차이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한 것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이 중·조 친선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그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김 위원장과 후진타



오 주석의 “따뜻한 관심과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중·조관계가 반드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

- 6월 1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최태복 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첫 방중 25주년을 기념해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대사를 비롯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친선모임을 개최

● **北, 중지진피해 복구 성과 소개(6/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100일을 맞아 베이징발로 지진피해 복구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냄.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 신속히 보도함.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국경절 기념 해방탑 헌화(6/12, 조선중앙통신)**

- 발레리 수히닌 대사를 비롯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12일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해방탑과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을 진정

● **러시아 파트니츠키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이 12일 평양에 도착(6/12, 조선중앙통신)**

마. 북·일 관계

● **조선신보, 북일 합의 ‘대화지속’ 평가(6/1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3일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부분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향후 쌍방 간 “대화지속”이라는 의미를 평가
-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논의한 문제의 본질은 조(북)·일 쌍방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외교적 목표의 설정”이라며 “공동의 과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미해결의 문제들도 풀릴 수 있다”고 말해 납치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 신문은 “후쿠다 정권 출범 후 조·일간에 공식회담이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후쿠다 총리에게 당연히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합의 이행의 책임이 후쿠다 총리에게 있음을 강조

● **조선신보, ‘北, 요도호 사건은 日 내부 문제’(6/13, 조선신보)**

- 요도호 납치범의 귀국문제는 일본인 적군파 구성원과 일본 정부 간에 해결해야 할 “일본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조선신보가 13일 강조
- 신문은 ‘요도호는 일본의 내부문제’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에서 “요도



호 관계자들의 귀국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북)은 그것이 당사자들 자체가 결심할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며 2004년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 “일본 측이 그들과 만나 필요한 실무협의 절차를 거쳐 이들을 다 데려간다면 요도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北, 日과 결심맺는 회담 준비(6/11, 조선신보)**

- 북한은 11~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결심”을 맺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조선(북) 측도 오랜만에 열린 일본과의 공식회담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만나서 대화할 바에는 결심을 맺어야 옳다는 관점에서 회담의 준비도 갖추었다”고 보도

● **北·日,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시작(6/11,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공식회의를 열어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 관계개선 문제 등의 논의에 착수
- 북핵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1일 오후 4시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공식 실무회의에 들어감.

바. 기타외교 관계

● **스위스, 대북 농업지원 확대 희망(6/14, 미국의소리방송)**

- 스위스 정부가 2008년 북한과 개발협력 사업에 380만달러(약 39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향후 대북 농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스위스연방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처(SDC)의 카트리나 켈웨거 북한담당관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언급
- 켈웨거 담당관은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북한 농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과학원 등과 협력하고 황해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평양의 협동농장, 종자생산 농장, 농업 연구소에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같은 기술 전수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스위스 SDC는 이 사업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
- * 스위스 SDC는 평양에서 소규모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는 동시에 매년 100명 정도의 북한 관리를 스위스, 쿠바, 중국 등지로 해외연수를 보내 시장경제를 접할 기회를 제공

● **유럽 구호단체 대북 식량지원 활발(6/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구호단체인 ‘도르가 국제지원’은 이번 주부터 북한 중부지역의 어린이 1천700명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옥수수과 야채가 들어간 영양짬뽕을 1년 동안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 또 2005년 북한 당국에 의해 활동 중단을 요구받고 철수했던 스웨덴 구호단체 ‘피엠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도 조만간 125만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재개할 계획, 피엠유 인터라이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스웨덴 국제개발처(SIDA)는 앞으로 2년 간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주민에 식용옥수수를 제공하고 농기계 관련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 **윤명국 제1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12일 라오스를 방문차 평양 출발(6/12, 조선중앙방송)**

● **파키스탄 대사관 관계자와 친선모임(6/12, 조선중앙통신)**

- 파키스탄과 문화협조협정 체결 35주년을 맞아 파키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친선모임이 6월 9일 대성제1중학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독일, 매년 北학자·대학생에 장학금 지급(6/12,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정부는 해마다 4~6명의 북한 학자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자국의 학자를 북한에 보내는 등 양국 간 학술교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정부기관인 독일 학술교류처(DAAD)가 제공한 장학금으로 현재 독일의 대학이나 고등연구기관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은 박사과정생 14명이 있으며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의 장기 장학금을, 10명은 3개월짜리 단기 장학금을 각각 받고 있음. 이 가운데 2명은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 중임.

● **유엔, 北 식량난 현장조사 실시(6/12, 미국의소리방송)**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유엔 공동실사단이 11일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 유엔 팀은 함경도와 량강도 등 8개 지역의 53개 군, 560개 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2주에 걸쳐 식량 사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리즈릴 대변인이 언급
- 리즈릴 대변인은 또 "이미 수요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은 평안도와 자강도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두 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배분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등 4개 민간 구호단체는 6월 4일부터 평안도와 자강도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노동당 유럽방문단 귀환(6/10, 조선중앙방송)**

- 김태중 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지를 방문하고 1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관 직원, ‘친선노동’에 참여(6/10, 조선중앙방송)**
 - 무하마드 샤히타 조로브 대사를 포함한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관 관계자들이 10일 평양 시동구역의 오류협동농장에서 농사일을 돕는 ‘친선노동’에 참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쇠고기 촛불집회’ 지지 담화 발표 및 신속한 보도(6/1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신보)**
 - 조선민주여성동맹은 13일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각 계층이 참가하고 있는 정권 반대투쟁은 단순히 쇠고기 시장 개방만을 반대하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인민적, 반민족적 정책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폭발”이라며 “남조선 정부가 북·남 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며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도 10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연대성을 보낸다”고 했으며,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은 “촛불집회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이라고 주장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7일 담화에서 “최후의 행복을 받아낼 때까지 전민항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보통 남측 소식을 전할 때 상당한 시차를 두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촛불집회 내용을 바로 다음날 오전에 보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지난 11일, 전날의 ‘6·10 촛불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설치한 컨테이너 장벽에 대해 상세히 보도
 - 조선신보는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가) 100일 만에 버림받고 위기에 빠진 것은 정권 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이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책동에 대한 분노의 분출”이라고 주장

나. 남북교류

- **北주민 2명, 서해상 통해 귀순(6/15, 연합)**
 - 북한 주민 2명이 15일 오전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의사를 표시, 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6~7시께 서해 소청도 앞 해상에서 북한 선적 전마선 1척이 귀순의사를 표시해와 1차 조사를 벌인 뒤



인천항으로 예인함. 북한주민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해경청은 “이들 주민은 북한에서 같은 마을에 살며 꽃게잡이를 하는 어민”이라고 언급

● **6·15민족통일대회 환영만찬 개최(6/15, 연합)**

- 6·15민족통일대회 환영만찬이 15일 오후 7시 30분 금강산호텔 연회장에서 남북 및 해외대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북측 대표인 안경호 위원장은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북·남·해외 정당 인사들을 망라하는 통일운동 연대세력인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구성됐다”며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자주의 단계로 승화시켰으며 이런 의미에서 금강산은 민족통일의 성지로 그 이름이 빛나고 있다”고 건배사를 함.

● **통일부, 6·15행사에 6명 방북 불허(6/14, 연합)**

- 통일부가 15~1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260여명 가운데 6명의 방북을 불허
- 이번 방북 불허 대상자는 이적단체 구성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뒤 법무부의 보안관찰을 받고 있는 피보안관찰자들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6·15행사에 南기자 1명 방북 불허(6/13, 연합)**

- 북한은 13일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8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6.15~16, 금강산) 취재진에 포함된 남측 기자 1명의 방북을 불허, 통일부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이날 남측위원회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 취재 기자에 대해 “초청장이 잘못 발급됐으므로 초청을 취소한다”며 “금강산에 들어오지 않도록 긴급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
- 북한은 12일 데일리 NK 기사를 포함, 이 행사 참석 차 방북을 신청한 남측 인사 280여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발급한 바 있음.

● **남북기금 지원, NGO에 분배투명성 입증책임(6/11, 연합)**

-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받은 민간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의무를 갖게됨. 통일부는 민간 대북지원 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
- 개정안은 또 현재 전체 사업비의 70%인 대북지원 사업 관련 기금지원 한도를 50%로 축소 조정하고 아울러 대북지원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포함)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



- **정부, 민간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40억원 지원 (6/11, 연합)**
 - 통일부는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40억원의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 통일부는 이를 위해 이날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기금지원 신청 공고를 내는 한편 83개 대북지원사업자 단체에 개별 통보해 26~27일 지원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 지원 대상은 대북 의료지원, 산림녹화 등 규모가 커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 범위 내에서 3개 사업에 지원될 예정임.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중·일 “6자회담 이달 말 개최 공감”(6/15)**
 -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달 말께 북핵 6자 회동을 갖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5일 “어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가 회동하자는데 합의했는데 그 시기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최근 열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긍정적인 결론을 맺으면서 6자 회동을 위한 분위기가 대부분 무르익은 것 같다는게 3국 외교장관의 상황 평가”라면서 “6자회담의 성격이 수석대표 회동일지 정식회담일 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일 간에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미국 내의 강경파를 설득하기가 수월해졌다”면서 “조만간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6자회담이 일어나 이달 말께 열리게 됨에 따라 당초 이달 말 열리는 G8(서방 선진 8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계기로 개최가 추진됐던 6자 외무장관회담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 **“美, 중동 집중해 北 비핵화 능력상실” <美연구소>(6/13)**
 -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가 중동지역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능력 상실’(Inability)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미국신안보센터’가 지적



- 워싱턴에 있는 미국신안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6자회담으로 일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달성하는 데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3일 전했다.

● 황준국 “대북 에너지지원 완료시점 대략 합의”(6/12)

-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2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 “타깃 데이트(목표 시점)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황 단장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6자 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결과와 관련, “어제 회담이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실무그룹 차원에서는 대북 지원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목표시점에 대해 “많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황 단장은 이어 “북측이 당초 요청한 시간표는 우리가 합의한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는데 현재 여건이 있으니 이에 바탕을 두고 북측도 합의한 것”이라고 말해 북측도 합의를 수용했음을 강조했다.

● 6자, 대북 에너지지원 방향·속도 합의(6/12)

-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이 11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제공될 경제·에너지 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 6개국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늦은 밤까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방안을 논의, 지원 방향과 속도 등에 합의했다.
- 6자는 경제·에너지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북한의 불능화 조치도 이에 맞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특정시점까지 경제·에너지 지원과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에너지 지원 계획서’ 작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 김 “北과 미사용연료봉 처리 논의”(6/12)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2일 평양에서 가진 북측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 1박2일 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전날 서울로 돌아온 성 김 과장은 이날 오전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용연료봉의 처리 문제도 다양한 옵션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측과 합의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의를 보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 “북핵 6자회담 조만간 개최가능” <힐 차관보>(6/10)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 최근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 만나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6자 회담의 조만간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2주 전 워싱턴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들과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대표와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일본의 회담은 매우 좋은 신호이며 두 나라의 국익에 더 좋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을 늦추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에너지 지원 등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 성 김 과장 방북...북·미 북핵협의를(6/10)

-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간 북핵 실무회의가 10~11일 평양에서 열림.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0일 오전 판문점을 거쳐 육로를 통해 방북, 1박2일 일정으로 북한 외무성 및 원자력중국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상응해 미국이 취해야 할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짓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성 김 과장은 전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이번 방북협의를 핵시설 불능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사용연료봉의 처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성 김 과장은 11일 서울로 귀환,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에게 협의 결과를 설명한 뒤 12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

● 대북 에너지 공여국회의 내일 서울 개최(6/9)

-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일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산하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의장국 자격으로 경제·에너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하기 위한 5자 공여국회의를 내일 개최한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참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예정
- 한국은 이번 5자 공여국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11일 북한까지 참여하는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예정



나. 미·북 관계

- “유엔 北 식량조사 11일부터 2주간 실시” <WFP대변인>(6/12)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유엔 공동실사단이 11일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밝혔음.
 - 12일 VOA에 따르면 리즐리 대변인은 “10명의 WFP 관계자를 포함한 유엔 실사단이 11일 오전 평양에서 조사 지역으로 떠났다”며 “유엔 팀은 함경도와 량강도 등 8개 지역의 53개 군, 560개 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2주에 걸쳐 식량 사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음.
 - 리즐리 대변인은 또 “이미 수요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은 평안도와 자강도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두 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배분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 “美 대학 학위 딴 北 유학생은 68명” <RFA>(6/11)

 - 지난 1월 말 현재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북한 국적의 학생은 34명이며 이와 별도로 이미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북한 유학생은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11일 보도
 - RFA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은 2004년 6명, 2005년 12명, 2006년 4명, 2007년 10명이었고 올들어 지난 1월에는 2명이 미국행에 성공했음. 이 가운데 2004년과 2005년에 입국한 유학생들은 3~4년 이상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미국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RFA는 분석

- 美 전문가들의 ‘北 중대 위기시’ 전망(6/11)

 -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저지하는 데 나설 것이고 사태가 악화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
 - 미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위 안보관계자들이 북한의 정치질서 붕괴시 ‘한미 합동작전’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 테러반대 성명 긍정적 조치” <미국무부 부차관보>(6/11)

 -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북한 외무



성이 테러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미국은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지난 2007년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발표한 ‘10.3 공동선언’ 내용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이와 병행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한인 2세 고교생들 북한 나무심기 운동” <VOA>(6/11)

- 미국 시카고의 한인 2세 고등학생 12명이 북한에 나무를 심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서 화제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이들은 미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힙합 춤 공연으로 기금을 모으기로 하고 내달 10일 첫 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방송 보도
- 북한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면 5달러가 필요하며, 이들은 우선 이달 안에 최소 3천 달러를 모아 북한 선교활동을 해 온 이 지역 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계획

● 美국무부, 北 테러반대 성명 환영(6/11)

- 손 매킨 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테러 반대 성명은 “우리 뿐 아니라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도 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
- 매킨 맥 대변인은 특정 국가가 테러지원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북한의 테러 반대 성명은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에 필요한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 그러나 성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테러행위나 테러 지원 행동을 했는지 여부이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최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

● 워싱턴 平統, 북한어린이 워싱턴 초청 추진(6/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지역협의회(회장 이용진, 이하 워싱턴 평통)는 10일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통일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한 북한어린이들을 평화의 사절단 형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린 코맥 미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과 지난 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코맥 부과장이 이 자리에서 북한 어린이 워싱턴 초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모린 코맥 미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은 남북한과 미국 등 3개국 대사가 참여하는 정치포럼 개최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제3단계로 넘어가고 북미관계가 더 나아지면 몰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고 조선교향악단 초청과 체육대회 개최는 워싱턴 D.C.에서는 곤란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의 개최 가능성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김명호 워싱턴 평통 부간사는 설명

다. 중·북 관계

● <기획탐구>중국 영해기선점 남·북한과 마찰 소지(6/12)

- 중국과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문제가 걸려 있는 황해 북부(북황해)의 중국측 영해기선점 가운데 일부가 암초거나 무인도 등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양국 EEZ 획정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영해기선점은 어떤 나라의 영해, 접속수역 및 EEZ 획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EEZ 획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암초와 무인도 등을 영해기선점으로 설정할 경우 상대 연안국과의 마찰을 배제할 수 없음. 중국이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는 북황해 영해기선점들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행정구역상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해역에 속하는 위옌(遇巖), 위안다오(圓島), 다먼딩(大門頂) 및 하이양다오(海洋島) 등 4곳. 그중 거주 인구가 5천명 이상인 하이양다오를 제외한 3곳은 암초거나 무인도임.

● “시진핑, 北과 식량원조문제 협의”(6/12)

- 오는 17~19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방북기간에 북한과 식량원조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복수 외교소식통들은 12일 “현재 북중 양국의 최대 현안은 바로 중국의 대북식량원조 문제”라며 “시 부주석은 작년 10월 새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사의 자격으로 상견례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인 식량원조 규모 및 시기를 북한과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시진핑 訪北은 17전대 이후 지도부로서 처음”(6/12)

- 중국은 오는 17~19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북한 방문은 지난 2005년에 있었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북이후 중국 최고위층의 방북이며 지난 2007년의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대회이후 새 집단지도체제 구성원(中央領導集體成員)으로는 첫 방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12일 중국 외교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류샤오밍(劉曉明) 평양 주재 중국대사는 시진핑 부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 관계발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고 중국은 북한과 서로 협력해 시 부주석의 방북이 성공을 거두고 북중의 양 당과 양국 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중은 대를 이어 전통적인 우



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하고 양국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서 나타난 관계 발전의 기회를 틀어 잡아 부단히 관계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

● **中, 화학비료 수출관세 대폭인상...대북수출 5월 이후 '0'(6/11)**

- 11일 중국 상무부와 비료업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월 비료수요가 많은 춘경기를 앞두고 현행 20%인 수출관세를 오는 9월30일까지 35%로 잠정 인상기로 결정했음. 요소비료에 대한 관세는 20% 수준에서 무려 113%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2007년 말 현재 비료 재고량은 2006년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비료의 대북수출도 크게 감소하다 못해 거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라. 일·북 관계

● **北, 南제외 美·中·日·러와 '양자채널' 구축(6/15)**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결과가 발표된 13일 “교착타개의 실마리를 찾은 쌍방이 추진하게 될 작업은 ‘지속적인 대화의 추진’으로 될 것”이라며 “사전접촉으로부터 합의도출에 이르는 과정은 쌍방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 후쿠다 총리는 14일 이번 북·일회담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 교섭과정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말해 북한과 ‘대화 단절의 시대’에서 ‘대화 있는 시대’로 변화했다는데 방점을 찍었음.
- 미국과는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가동되어온 뉴욕채널 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의 수시 방북 및 접촉을 통해 양자간 현안 해결의 채널을 구축하고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북 중국대사관 방문, 평양에서의 성대한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등 올들어 북·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권부의 2인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오는 17일부터 2박3일간 방북할 예정이고 이 때 중국은 북측과 대규모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日정부, 對北제재 일부 해제(6/13)**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13일 출입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북일간 인적 왕래 금지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고무라 외상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양국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측이 일본항공(JAL) ‘요도호’ 여객기 납치범 인도에 협조하는 한편 안부가 불투명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의향을 표명했다며 일부 제재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무라 외상은 북한이 핵폐기 프로그램 신고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중유 제공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日 거주 탈북여성, 조총련 상대 손해소 제기(6/13)**

- 일본에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해 강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탈출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수용소 생활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1천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3일 오사카(大阪)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 2세인 고정미(高政美·47)씨로 부모는 제주도 출신이고, 1962년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북한에 가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조총련 관계자의 말을 믿고 1963년 고씨 등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음. 고씨는 북한 생활에 불만을 느껴오던 중 2000년 아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뒤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고문을 받았음. 이후 2003년 탈북에 성공해 일본으로 돌아왔음.

● **日 “北과 건설적·진지한 대화”(6/12)**

- 북핵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공식회의를 마친 뒤 “북한과 건설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 북일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 사이키 국장은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이틀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건설적이며 진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요도호 사건 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협상 결과는 “내일 일본에 돌아가 본국 보고를 마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日에 ‘요도호 납치범 추방’ 밝힐 듯(6/12)**

- 북한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공식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
-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주중 일본대사관에서 이틀째 회의를 갖고 북한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

● **日, 北에 납치문제 해결 촉구(6/11)**

- 일본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공식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음.

-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이날 오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2시간 30분 동안 일본인 납치문제와 함께 과거 청산 등의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음.
- 사이키 국장은 “오늘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송일호 대사는 내일 오전 회의에서 북한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며 “일본과 북한 모두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음.

● 北-日,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시작(6/11)

- 북한과 일본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공식회의를 열어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 관계개선 문제 등의 논의에 착수
- 북핵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공식 실무회의에 들어갔음.

● 日외상, 對北협상 ‘행동 대 행동’ 원칙강조(6/11)

-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11일부터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양국 정부간 공식 실무자 협의와 관련해 ‘행동 대(對)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
- 고무라 외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이 크게 한발 내디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 쪽도 크게 내딛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상대의 행동이 작으면 우리도 작게 나갈 것이다”며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의 진전 여하에 따라 제재조치 완화 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

● 北, 日에 ‘무연탄가스화설비’ 비용 요구(6/10)

- 북한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에너지 지원의 하나로 ‘무연탄 가스화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본에 건설 비용 중 4천만 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음.
- 북한은 지난 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에너지 실무협에서 무연탄 가스화설비를 지어줄 것을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남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무연탄 가스화설비’ 건설현장 방문 등 모니터링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이지만 일본이 북한의 자국민 납치자문제 해결없이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같은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은 또 지난주 남북 실무협에서 “경제·에너지 지원이 불능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2단계를 마무리짓고 3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9월까지 중유지원 완료 ▲즉각적인 발전 설비·자재 제공 계획 수립 등을 남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기타

● “스위스, 대북 농업지원 확대 희망”<SDC담당관>(6/14)

- 스위스 정부가 올해 북한과 개발협력 사업에 380만달러(약 39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향후 대북 농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스위스연방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처(SDC)의 카트리나 켈웨거 북한담당관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전했다.
- 14일 VOA에 따르면 켈웨거 담당관은 “스위스 SDC는 북한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양배추나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해충 구제와 윤작, 경사지 농사와 관련된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켈웨거 담당관은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북한 농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과학원 등과 협력하고 황해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평양의 협동농장, 종자생산 농장, 농업 연구소에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같은 기술 전수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스위스 SDC는 이 사업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럽 구호단체 대북 식량지원 활발”<RFA>(6/14)

- 북한 식량난이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의 구호단체들도 대북 식량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구호단체인 ‘도르가 국제지원’은 이번 주부터 북한 중부지역의 어린이 1천700명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옥수수와 야채가 들어간 영양편빵을 1년 동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5년 북한 당국에 의해 활동 중단을 요구받고 철수했던 스웨덴 구호단체 ‘피엠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도 조만간 125만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재개할 계획. 스웨덴 국제개발처(SIDA)는 앞으로 2년 간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주민에 식용옥수수를 제공하고 농기계 관련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RFA는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4월 100만유로 상당의 곡물 2천650t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보냈으며 독일 정부도 지난달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약 120만달러를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 “이스라엘 북한 포함 새 핵 협정 필요”<濠NNDC의장>(6/10)

-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무기



협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호주 관리가 10일 밝혔음. 새로운 핵군축 기구 의장으로 선출된 개리스 에번스(Gareth Evans) 전 호주 외무장관은 전 세계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하는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절차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韓, 세계 24개국 가운데 美에 가장 우호적”<퓨리서치>(6/13)**
 -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집트, 멕시코 등 전세계 24개 국가 가운데 한국 국민이 미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21일 까지 전세계 24개국의 국민 2만4천명을 대상으로 ‘세계화 인식’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미(對美) 우호도와 관련, 한국인 응답자 가운데 70%가 ‘우호적’이라고 답변해 가장 높았고 폴란드(68%), 인도(66%), 탄자니아(65%), 나이지리아(64%) 등이 그 뒤를 따랐음.
 - 한국의 경우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작년 조사에선 58%에 불과했으나 1년만에 12% 포인트나 올라, 탄자니아(19%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의 이미지가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美국무부, 쇠고기문제 백악관 입장 재확인(6/13)**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쇠고기 문제해결을 위해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하려고 13일 미국 워싱턴을 전격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무부는 12일 미 쇠고기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가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 백악관의 입장을 재확인했음.
 -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이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한국 수입업자들과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경우 이를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말했음.
- **버시바우 “수일내 추가 양해사항 나올 것”(6/12)**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에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음.
 -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이 지난 4월에 만든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합의



문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검역주권 및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된 추가적 합의를 통해 재협상 없이도 관련된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양국이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각 국 의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라며 “이런 접근방식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올해 안에 미 의회의 비준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언급, “한미동맹은 공통의 이해와 가치에 기반한 충분히 공고한 관계이기 때문에 요즘 어려운 상황으로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양국 정부는 재협상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밝혀 재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음.

● 韓美, 쇠고기 자율규제 통한 단계수입 가닥(6/12)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급파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등 3개 대표단은 11일 미 행정부 및 의회측 관계자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측의 협조를 당부했음.
- 특히 대표단은 미국측 수출업자와 한국측 수입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해 도축 당시 월령 30개월 이상인 쇠고기에 대해선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일정기간 수출을 유예토록 하고 이 조치가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문서를 통해 뒷받침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 쇠고기 자율규제를 통한 단계적 수입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한나라당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벤 넬슨(네브라스카주) 상원의원 등 미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내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고 미국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음. 황 위원장은 “양국 민간 수출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미 행정부가 문서나 다른 방식으로 한국 국민이 안심하도록 이를 보증해주고, 미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 의회도 협조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이었다”고 밝혔다.

● 美농무, 韓 쇠고기사태에 ‘정치적 배후’ 주장(6/11)

-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두 개 육류가공업체를 방문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사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정치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육류전문매체인 ‘미팅플레이스닷컴(Meetingplace.com)’이 11일 보도



- 사퍼 장관은 “미국의 입장은 국제과학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라면 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미국처럼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나라에 대해선 모든 율령 소의 전체 쇠고기와 소 부위(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퍼 장관은 또 “(미국의) 육류생산공정이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美, 한반도 관할 첫 핵항모 조지워싱턴호 배치연기(6/11)

- 미 해군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하와이 인근 해안에서 실시되는 아-태지역 해군 연합기동훈련인 ‘림팩(환태평양) 훈련’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대신에 키티호크호가 참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 조지워싱턴호는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당초엔 지난 8일 하와이에서 그동안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한반도 작전을 담당했던 디젤추진 구형 항공모함인 키티호크호와 임무교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수행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지난 달 22일 새 임지로 향하던 중 선상에서 화재가 발생, 샌디에고항으로 회항했음.
- 이달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림팩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칠레, 호주 해군도 함께 참가할 예정

● 美상무장관 “한국인 다주고 아무것도 못받았다 생각”(6/11)

-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10일 쇠고기 협상 문제와 관련, “한국인들은 현재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우리(미국)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 의회에 조속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 구티에레즈 장관은 “한국 정부관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미국) 쇠고기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들은 막대한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미국) 의회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 “부시 한국방문에 기대감...따뜻한 느낌 갖고있어”<힐 차관보>(6/10)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한 한국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9일 말했다. 힐 차관보는 한미 양국 관계는 이제 단지 한반도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폭넓은 논의하는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했다고 강조
- 힐 차관보는 쇠고기 파동과 관련,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힐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양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시 대통령은 FTA



비준동의안 의회 통과에 매진하고 있으며 미국측에서도 미국과 한국에 FTA가 갖는 가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방사청, 한·미 방산기술협력위 참석(6/9)

- 양치규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8명의 대표단은 9~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0차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회의에 참석 예정
- 한·미는 작년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상 한국의 지위가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 등 양국 방산 현안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대표단은 미국 공군과 국방부의 획득업무 담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FMS 제도로 구입하는 무기의 신속한 수출허가를 위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후진타오 올림픽 뒤 방한”(6/14)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한이 8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4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후 주석의 방한 시기와 관련, “당초 7월 방한을 검토했지만 쓰촨성 지진 등의 문제로 8월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 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재차 확인하는 등 양국 간 정상외교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조기 개최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단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6자회담이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두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방중을 계기로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외교 당국간에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과 금융, 에너지 분야 등 중점 경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中대사 “李대통령 지진현장 찾아줘 감사”(6/12)

-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쓰촨성 대지진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 것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닝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를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고 배석한 김정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 닝 대사는 홍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한중친선협회’를 발족해 양국 국회가 선린우호와 실질적 이익 창출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음.

● **中언론, 6.10 촛불시위에 관심(6/11)**

- 중국 언론은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 촛불집회를 상세히 보도하고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음.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11일 국제면 톱기사에서 한국에서 쇠고기 위기가 고조돼 내각이 총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

다. 한·일 관계

●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정례화 합의(6/14)**

- 한국과 중국, 일본은 14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정례화하자는데 합의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3국 외교장관회담 정례화에 합의했음.
- 고무라 외상은 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차기 3국 외교장관회담은 중국 측이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3국 외교장관은 또 첫 한·중·일 정상회담을 올해 9월께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3국 외교장관은 또 최근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날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 등을 계기로 ‘재난방지 및 관리’ 분야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음.
- 3국 외교장관은 아울러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와 북·일 관계 및 남북 관계의 진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며 “6자회담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 3국은 또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개발 문제를 논의할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하고 첫 회의를 올 가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에너지와 기후변화,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柳외교, 도쿄도착…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6/14)**

- 제2차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만나 3국 간 협력증진 방안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

라. 미·중 관계

● 美中 4차 전략경제대화 17,18일 개최..무역불균형 논의(6/16)

- 미국과 중국은 17일과 18일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무역불균형, 식품안전 문제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분야 협력 등 양국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
-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일레인 차오 노동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음. 중국에서는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

● 美의원들 ‘중국발 해킹당했다’ 주장(6/12)

- 중국내 인권문제 비판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미국 하원의원 2명의 컴퓨터가 ‘중국발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음. 공화당 소속의 프랭크 울프와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 울프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4대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해킹당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에게 이 공격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미국 기업과 인권 및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는 국가 간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스미스 의원의 컴퓨터 역시 2회에 걸쳐 중국발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중·일 관계

● 中, 日지진 계기 재난 예방 협력 강화 제의(6/15)

- 한 달여전 쓰촨(四川)성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은 14일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자 즉각 위로 전문을 보내고 재난 예방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간접적으로 제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강진이 발생한 이날 “중국은 중·일 양국과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재난 예방을 비롯한 아시아 문제에 대해 조정과 협력을 증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
- 장위 대변인은 이어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중·일 양국 지도자 간의 합의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동중국해 사고 일에 불만 표시(6/10)**

- 중국은 일본과의 영해 분쟁지역인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대만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건과 관련, 10일 일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센카쿠(尖閣)열도)는 오래 전부터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중국의 영토”라고 전제하고 “일본이 인근 해역에서 불법 순시활동을 하다 대만 어선과 충돌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다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것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음.

● **“中·日, 가스전 공동개발 ‘춘샤오’ 포함않기로”(6/10)**

-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가스전을 공동개발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시라카바(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홍콩 신보(信報)가 10일 일본 언론을 인용, 보도
-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에 대해 이미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양국 중간선에 걸쳐있는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공동개발기로 했음.
- 양국은 또 양국 해안선에서 등거리에 해당하는 중간선을 분계선으로 삼되 부근 해역에 여러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 개발 비용과 수익을 모두 절반으로 나누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9일 “협상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다. 중국에 (쓰촨 대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지만 동중국해 가스전 협상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음.

바. 기타

● **주한 몽골대사 “한국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6/11)**

- 게렐 도르지팔람(H.E Gerel Dorjipalam) 주한 몽골대사는 “몽골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도르지팔람 대사는 11일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시청각실에서 가진 ‘한·몽 국제교류협력 강화방안’이란 제목의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지난 90년 외교수교 이후 에너지와 농업,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로 무역 4위, 투자 3위에 달할 만큼 몽골의 중요 교역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 **中, 潘 총장 내달 1~3일 방중 공식발표(6/10)**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달 1~3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발표했다.
-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반 총장은 중국 방문에 이어 취임 후 처음



으로 내달 3일부터 4박5일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며 방한 직후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 선진 8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

● 반기문 총장, 내달 3일 취임뒤 첫 방한(6/10)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부 초청으로 다음달 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혔다.
- 반 총장은 방한기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무총리와의 면담,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